

혹시 우리 아이도 학교폭력 피해자?

말 수 적어질때 한번쯤 의심 해보세요

학교 폭력이 장난 수준의 단순 폭행에서 벗어나 갈수록 대법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 같은 학교 학생을 집단 폭행하는 것도 부족해 인터넷을 통해 성폭행까지 사주한 무서운 고교 1학년 여고생 6명이 지난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시·도 교육청 등은 매년 신학기만 되면 학교폭력 근절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발생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가고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과거 학교 폭력 양상과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학교 폭력에서 벗어나 있던 부유층 자녀와 우등생도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 된지 오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우등생과 부유층 자녀들을 자신(가해 학생)들의 편으로 만들어 함께 다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학교 폭력 피해 체크리스트=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자녀의 행동 양식을 자주 관

찰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징후를 찾아야 한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은 우선 대부분 가정에서 갑자기 말 수가 적어지거나 우울해 하는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등교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고 갑자기 부모에게 전화이나 자퇴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피해 학생의 전형적인 행동 유형이다.

휴대전화나 자주 오거나 외부 전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현재 학교 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소지품, 새로 산 운동화,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 때도 학교 폭력을 의심해야 한다.

노트와 일기장 등에 ‘죽고 싶다’ ‘학교 가기가 싫다’ 등을 낙서하는 것도 대부분 학교 폭력에 따른 반사행동이다.

이외에도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입맛을 잃는 등의

행동 유형을 보일 때가 있다. 이 같은 행동 유형을 보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녀와 대화를 시도해야 하고, 담임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정·학교의 역할 중요=경찰과 교육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 대화 시간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학교다.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보다 학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시간이 줄면서 학교 폭력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많은 대화와 관심을 가져야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폭력 체크리스트

이래의 각 문항마다 ‘자주’는 2점, ‘때때로’는 1점, 그렇지 않다는 0점씩 매긴 뒤 영역별 점수를 합산한다.

- ▶ 학교 적응력
 - ①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싫어 녹장 또는 피부를 부린다.
 - ② 학년 초 반이 바뀌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 ③ 전학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한다.
 - ④ 선생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수업에 적응하지 못한다.

- ▶ 자기 통제력
 - ① 잘 울고 짜증을 부린다.
 - ② 친구가 놀리면 화를 잘 낸다.
 - ③ 거짓말을 잘 한다.
 - ④ 하지 말라고 꾸중해도 소용없다.

- ▶ 감정관리
 - ① 사소한 일로 토라진다.
 - ② 화가 나면 오래 간다.
 - ③ 겁이 있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 ④ 친구와 가끔 싸움을 벌인다.

- ▶ 친구 사귀기
 - ① 새로운 친구를 잘 못 사귈다.
 - ② 친구에게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이 부족하다.
 - ③ 특별히 친한 친구가 없다.
 - ④ 자기만 알고 질투가 많다.

- ▶ 책임감
 - ① 자기 밥을 정리정돈하지 못한다.
 - ② 공부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
 - ③ ‘이거하면 안돼?’ ‘친구와 놀면 안돼?’ 말 많을 지주 한다.
 - ④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한다.

- ▶ 발달 과정
 - ① 자기보다 어린아이하고만 놀고 싶어 한다.
 - ② 신체정서발달상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③ 감정표현이 서툰고 상황판단을 잘 못한다.
 - ④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사만 이야기한다.

영역별 점수가 4점 이상이면 지도가 필요. 5점 이상은 전문가의 심리 치료가 요구된다.

▶ 학교폭력 및 왕따주의보 합산 점수가 8점 이상이면 사회성 부족으로 왕따 가능.

▶ 학교폭력 및 왕따 경보 15점 이상은 집단 따돌림의 표적 가능.

▶ 학교폭력 피해자 20점 이상은 이미 학교폭력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한국심리교육연구소(주)이세원(가)개발 체크리스트

/ 전문가에게 듣는다 /

“아이들 말씨·행동 세심한 관심가져야”

광주시교육청 장 호 장학사



“아이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 외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장학진흥과 인성교육팀 장 호(50) 장학사는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은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부모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전부라 아니라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의 발달, 핵가족화 및 가족의 해체, 휴대전화 문화 등 급변하는 사회가 학생들로 하여금 가해자든, 피해자든 폭력에 노출되게 한다는 것이다.

장 장학사는 “교사의 말을 들

지 않고, 학교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은 사회의 규칙도 무시하게 마련”이라며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원 범죄예방위원회는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장학사는 “학교 폭력은 어느 한 소속 집단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

“피해학생 초기 신고로 뿌리 뽑자”

전남경찰청 고은경 청소년계장



“학교 폭력에 오래 시달리면 우울증 등의 정신병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초기에 경찰에 신고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고은경(37) 여성청소년계장은 25일 “학교 폭력을 초기에 뿌리 뽑고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교, 경찰의 도움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고계장은 “피해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와 가정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녀와 대화

시간을 늘리고 갑작스런 자녀의 태도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매년 신학기 때면 학생들의 ‘기(氣)싸움과 ‘짱’자리 때문에 학교 폭력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 등 초기에 신고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고계장은 “피해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와 가정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녀와 대화

■ 학교폭력 이렇게 추방했다

광주공고

찾아가는 상담·밀착 지도로 사전예방

광주공고(교장 주규봉)가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학교폭력이 잦아 교사들이 학생부장 맡기를 꺼렸던 점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변화다.

실업계 고등학교인 데다 전교생이 1천900여 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배가량 많은 이 학교에서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사고는 1건. 올해는 25일 현재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결은 학교와 학부모가 힘을 합쳐 펼치는 사전예방 지도다. 이 학교는 신학기가 되면 전교생을 상대로 가정방문을 실시, 결손 가정 학생이나 일탈 가능성이 큰 학생 등을

미리 파악한다. 이후 담임교사를 통해 이른바 문제제기 있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학부모나 보호자와 연계해 생활지도도 한다. 지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7명의 교사로 구성된 학생복지부가 나서 ‘밀착 지도’를 한다. 전문상담교사도 동시에 이들 학생에 대한 상담을 펼친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상담실을 찾아가기를 기피하는 만큼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거리를 해소시켜 준다.

학생복지부 교사들은 학교 건물을 구역 및 층별로 나눠 전담 관리하며, 학교 내에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취약지구를 수시로 돌아다보며 학교 폭력을 철저히 예방한다. 학교 역시 학생들의 정서순화가 폭력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한자 쓰기를 시키거나 EBS 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한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 학교 흥명회 학생복지부장은 “2006년부터 사전예방지도도 강화하면서 학교 폭력이 없어지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이 학부모 등과 협의해 책임의식을 갖고 학생 생활지도도 강화하면 학교폭력을 충분히 예방하거나 근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통계로 본 학교폭력

올들어 120건...작년보다 10배 늘어

광주·전남지역의 학교 폭력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2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과 2월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은 모두 120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10배 이상이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도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또 최근 2년 사이 학교 폭력으로 연루돼 형사 처벌된 청소년은 2천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 폭력은 모두 665건으로 1천681명이 형사처벌됐다. 2005년은 251건(882명)이었다.

이 가운데 단순 폭력이 505건에 1천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갈취 160건(386명) ▲성폭력 14건(28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중 10명(단순폭력 2명·금품갈취 1명·성폭력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천67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덤프트럭용 자동달개

다리덤프 도입 안내

본사는 2007년 3월 26일 (월)부터 3월 27일 (화)까지 2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길 10 (삼성동)에 위치한 (주)SY비키(수영) 본사에서 다리덤프의 도입을 안내합니다.

개요

- 자동달개 설치
- 안전장치
- 내구성
- 저유류

특징

- 자동달개 설치
- 안전장치
- 내구성
- 저유류

(주)SY비키(수영) 본사: 051-700-1111 / 팩스: 051-700-1112
 영남: 051-700-1113 / 팩스: 051-700-1114
 http://www.sybiki.com

(株)행복출발

행복출발은 2007년 3월 26일 (월)부터 3월 27일 (화)까지 2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길 10 (삼성동)에 위치한 (주)행복출발 본사에서 행복출발의 도입을 안내합니다.

개요

- 자동달개 설치
- 안전장치
- 내구성
- 저유류

특징

- 자동달개 설치
- 안전장치
- 내구성
- 저유류

(주)행복출발 본사: 051-527-3388
 영남: 051-527-3389
 http://www.happystart.com